

제2차 고등교육정책포럼

지방대학 간

# 공유·협력 활성화 방안

일 시

2021. 2. 24.(수) 15:00~16:30

참가안내

 유튜브(KEDI TV) 생중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포럼 진행

주 최

교육부

주 관

한국교육개발원





## 일 정

- 일시 : 2021. 2. 24.(수) 15:00 ~ 16:30
- 장소 : 유튜브(KEDI TV)생중계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 일정

시 간	내 용	
	<b>사회</b> 조옥경(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정책연구실장)	
15:00 ~ 15:10	<b>[인사말]</b>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15:10 ~ 15:25	<b>[기조강연]</b>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공유 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개편방안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15:25 ~ 15:45	<b>[발표]</b>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학생성공센터장)
15:45 ~ 16:30	<b>[토론1]</b> 대학 간 개방형·공유형 대학교육 모델 구축 사례	이은진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센터장)
	<b>[토론2]</b> 공유형 대학원 설립을 위한 과제	홍진태 (충청북도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센터장)
	<b>[토론3]</b> 공유대학에 기업이 바라는 점	진은숙 (NHN 기술전략팀 CTO)





## 인사말

신익현(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신익현입니다.

오늘 ‘지방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 2차 고등교육정책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함께 기획하고 기조강연을 준비해주신 반상진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여러분, 이번 주제에 대해 깊이 연구해주시고 발표를 맡아주신 배상훈 교수님, 공유대학과 관련하여 토론을 맡아주신 이은진 센터장님, 홍진태 센터장님, 진은숙 NHN 총괄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와 합동으로 5개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 여러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R&D 등 현안 해결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공유대학’은 이 사업을 계기로 태동한 고등교육혁신 모델 중 하나로, 개별 대학의 힘만으로는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토대로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한 모델입니다. 지역 내 대학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강점을 결집함으로써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도입니다.

공유성장형 고등교육 혁신모델 수립에 대한 움직임은 ‘지역’을 넘어 ‘권역 간’ 협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출범하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상생모델을 창출할 것입니다. 세종시도 AI/ICT 분야 공동캠퍼스를 구축하여 미래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 간 공유·협력 모델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학계, 대학,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한시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공유대학의 혁신적인 시도가 기존의 틀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지방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포럼을 계기로 학계 차원에서도 공유대학이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목 차

---

- 【기조강연】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개편방안 ..... 3  
-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발표】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 19  
- 배상훈(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학생성공센터장)
- 【토론1】 대학 간 개방형·공유형 대학교육 모델 구축 사례 ..... 37  
- 이은진(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
- 【토론2】 공유형 대학원 설립을 위한 과제 ..... 47  
- 홍진태(충청북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충북대학교 약학대학장)
- 【토론3】 공유대학에 기업이 바라는 점 ..... 57  
- 진은숙(NHN 기술전략팀 CTO)





【기초강연】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개편방안**

---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개편 방안 - 사회제도 개혁 -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2021.2.24.(수)



본 자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균형발전연구단(2020.7.14)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 CONTENTS

- 01 왜 교육혁신의 핵심이 대학개혁이어야 하는가?
- 02 왜 공유성장형인가?
- 03 대학연합체제 논의 배경은?
- 04 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한가?
- 05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향과 구조는?
- 06 나가는 말

# 1. 왜 교육혁신의 핵심이 대학개혁이어야 하는가?

## 가 교육문제의 핵심 연결고리 : 극단화된 대학서열구조와 학벌 중시 고용구조

- 교육의 병목현상(김종영) :
  - ✓ 서울 중심의 공간병목
  - ✓ 명문대 중심의 대학병목
  - ✓ 상대평가로 인한 시험병목
  - ✓ 사교육비에 의존한 계급병목



## 나 Hybrid Crisis, 대전환 시대, 고등교육은 위기 대응 및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

-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 기능과 미래 가치와 지식 생산의 핵심 기제
  - ✓ Hybrid Crisis 시대,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대학은 새로운 질서와 가치 창출, 인재 양성의 핵심 기능
- 10개의 직업 중 6개가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바이든 교육공약, 2020.7)
  - ✓ 미래 국가 성장 핵심, **인적자본의 질 향상** → **노동생산성의 질 향상**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 극복) → **교육혁신투자 확대**

# 2. 왜 공유성장형인가?

## 가 역사적 변혁의 두 가지 큰 물결

###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Occupy Wall Street (We are the 99%)

- 지난 1990-2000년대 세계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국가발전전략에 의해 차별과 배제 논리 심화,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
- 2012년 WEF 주제,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
- 소유의 종말(01), 한계비용 제로 사회(14) (제레미 리프킨) → 향후 사회는 공유·협력의 세계로 전환
  - ✓ 협력과 공유(자산, 경험, 지식 등 공유)에 기반한 새로운 공유경제 패러다임(네트워크 경제, 연결경제, 호혜경제, 플랫폼 경제)
  - ✓ Car Sharing 기업(우버, Lyft), Airbnb, Sharing House, Socar, Wikipedia 등
- 세계경제침체 극복과 미래 사회 패러다임 변혁 과정에서 **‘초국가적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 2)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혼합위기(Hybrid Crisis), 뉴노멀 사회

- 코로나 19 파급효과
  - ✓ 국제건강 위기, 국제경제 위기, 국제리더십 및 질서의 혼돈, 기후 위기 등 **혼합 위기 국면**
  - ✓ 기업 및 공공부채 급증,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다자간 조직에 대한 압력, 마이너스 성장 지속, 일자리 급감, **사회분열, 초양극화** 등
-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 사회, 생명, 인간 가치 중심 사회
  - ✓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전환, 모든 분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 트렌드와 패러다임 변혁, **“연대와 협력”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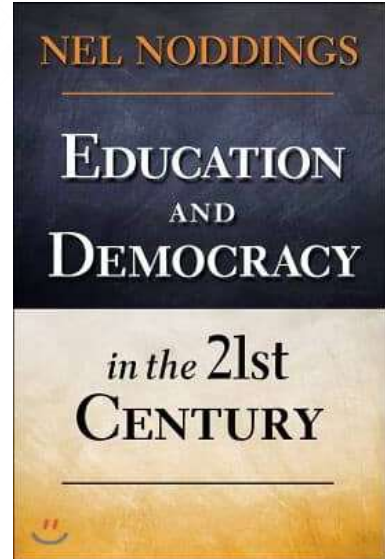
## 2. 왜 공유성장형인가?

### 나 '교육이 연계협력 중심의 공유성장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 이론적 논거

스탠포드대학 명예교수인 넬 나딩스(2016)는 “학교는 삶의 세 영역(가정의 삶, 직업적 삶, 시민적 삶)의 욕구를 다루는 다목적 공간”으로 규정

"국제적 시험 성적은 잘못 안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지금은 21세기이며 경쟁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이다."(38쪽).

오늘날 교육의 핵심어는 **협력, 대화, 상호 의존, 창의성**입니다(38쪽). 학생들의 현실 생활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목의 더욱 정교한 분리 경향에 효과적인 저항을 하려면 **협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속의 민주주의, 평등하고 상호 소통하는 대화, 생태적 세계시민주의 실현이 필요**(55쪽)



심성보 역(2016).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 개인적 삶, 직업적 삶, 그리고 시민적 삶을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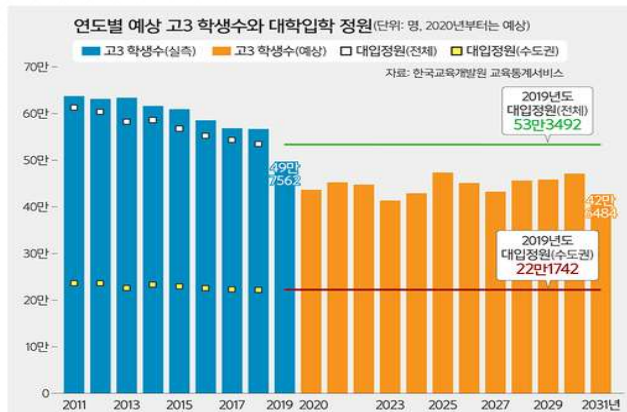
## 2. 왜 공유성장형인가?

### 나 '교육이 연계협력 중심의 공유성장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 고등교육 분야

#### 1) 대학의 지형 붕괴 상황 : 고등교육의 기초 체력 붕괴 가능성 증대

##### 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수요와 대학입학정원의 불일치

- 대학 입학 수요 < 대학 입학정원
- 2020년 고3 학생 수, 43만7950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49만3433명
- 일반대와 전문대 입학정원은 47만9012명



## 2. 왜 공유성장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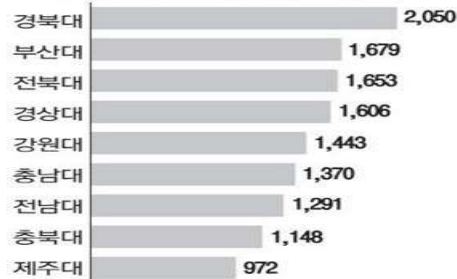
### 나 '교육이 연계협력 중심의 공유성장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 고등교육 분야

#### 1) 대학의 지형 붕괴 상황 : 고등교육의 기초 체력 붕괴 가능성 증대

##### ② 지방 소재 대학 공동화 현상 우려 심화 (국립대 사례만으로도 심각)

- 지방 주요 9개 국립대 자퇴생, 2017년 3981명, 2018년 4438명, 2019년 4793명
- 작년 전체 학생 가운데 2.4% 자퇴
- 경북대 자퇴생은 2014년 387명에서 2019년 796명으로 2배
- 2015~2019년 자퇴생은 2973명으로 2019년 입학정원 4961명 대비 60%(95% 다른 학교 진학)

최근 3년간 지방 국립대 자퇴생 수  
(단위=명) \*자료=교육부 대학알리미(2017~2019년)



출처: 매일경제, 2020.10.20

## 2. 왜 공유성장형인가?

### 나 '교육이 연계협력 중심의 공유성장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 고등교육 분야

#### 2) 대학간 자원 공유의 필요성 증대

##### ① 정부 고등교육투자의 비효율적 운영에 의한 대학간 자원 공유 필요성 증대

- 정부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연구 성과는 지방 소재 대학이 우수한 편임.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효율적일 필요가 있음.

〈표 1〉 지역간 대학재정 지원과 연구 성과 비교 분석(2019년 기준)

구분	대학재정 지원과 연구 성과 비교				
	대학재정지원 (억원)	대학당 재정지원 (억원)	교수1인당 연구비 (백만원)	교수1인당 국내논문수(편)	교수1인당 국외논문수(편)
전국	66,007 (100.0)	345.6 (100.0)	168.0 (100.0)	0.55 (100.0)	0.42 (100.0)
수도권	31,797 (48.4)	447.8 (61.4)	216.3 (61.9)	0.54 (49.1)	0.52 (59.4)
지방	33,855 (51.6)	282.1 (38.6)	133.3 (38.1)	0.56 (50.9)	0.35 (40.6)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2) 대학재정지원 자료는 2018년 기준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2. 왜 공유성장형인가?

### 나 '교육이 연계협력 중심의 공유성장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 고등교육 분야

#### 2) 대학간 자원 공유의 필요성 증대

#### ② 한국 대학,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에 못 미치는 수준 극복

- 대학간 자원 공유를 통해 새로운 대학경쟁력을 모색해야 함.
- 한국의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외국 유수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음 편임.
- 하지만 교수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외국 대학의 60% 내외 수준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음.
- 특히 대학예산은 외국 대학에 비해 국사립대학을 막론하고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결국 국내 대학은 규모의 경제에 못미치는 열악한 재정 상황임.

〈표 2〉 한국, 미국, 일본 국가 경제규모 비교 (2020년 추정 기준, IMF)

구분	한국	미국	일본
GDP(\$)	1조 5,868억(10위)	20조 8,073억(1위)	4조 9,106억(3위)
1인당 명목 GDP(\$)	30,644(26위)	63,051(5위)	39,048(22위)

## 2. 왜 공유성장형인가?

### 나 '교육이 연계협력 중심의 공유성장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 고등교육 분야

〈표 3〉 국내외 대학간 학생수, 교수수, 대학예산 규모 비교

국내 대학				해외 대학			
대학명	학생수	전임 교수수	예산 (억원)	대학명	학생수	전임 교수수	예산(\$)
서울대 (국립법인)('19)	27,784	2,130	8,290	Harvard Univ. (사립)('19)	18,802	2,310	\$52억 (6조 2,400억원)
연세대 (사립)('20)	28,925	1,695	5,859	Stanford Univ. (사립)('20)	16,384	2,276	\$68억 (8조1,600억원)
고려대 (사립)('20)	29,580	1,477	6,544	Univ. of Chicago (사립)('20)	17,170	2,377	\$5.16억(6조1,920억원)
성균관대 (사립)('20)	27,100	1,487	6,238	Columbia Univ. (사립)('20)	27,114	1,602	\$50.3억(6조360억원)
부산대 (국립)('19)	27,830	1,187	3,708	Univ. Of Wisconsin-Madison(공)('20)	37,931	2,112	\$31.9억(3조8,280억원)
경북대 (국립)('20)	27,862	1,196	3,294	Univ. of California-Berkeley(공)('19)	42,347	1,529	\$30억(4조2,000억원)
전북대 (국립)('19)	21,757	1,042	2,526	동경대('20)	28,675	2,198	2,599억엔(2조8,100억원)

주: 1) 학생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 기준임.  
 2) 국내 대학 예산은 교비회계 기준임.  
 3) 환율은 해당년도 기준으로 \$1 당1,200원으로 추정하였음.  
 자료: 각 대학 홈페이지.

### 3. 대학연합체제 논의 배경은?

#### 가 대학연합체제(국립대통합네트워크) 논의 전개 과정

국립대연합체제(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대학서열체제와 학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던 200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쟁점

- ✓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2001) : 2001년 서울대 장희익 교수 등
-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2004) : 정진상
- ✓ 한국형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방안(2012) : 반상진
- ✓ 국립기초교양대학안 (2012) : 김상곤
- ✓ 대학통합네트워크안(2015)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학단협

지난 2012년 대선 민주통합당 공약(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채택

2011년 이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국립대 네트워크안, 권영길, 정동영, 박원순, 이재정, 조희연, 문재인 등 정치인 및 교육감 등이 다양한 명칭으로 제기함(은수진, 2019)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교육공약으로 채택

### 3. 대학연합체제 논의 배경은?

〈표 1-1〉 대학체제 개편 논의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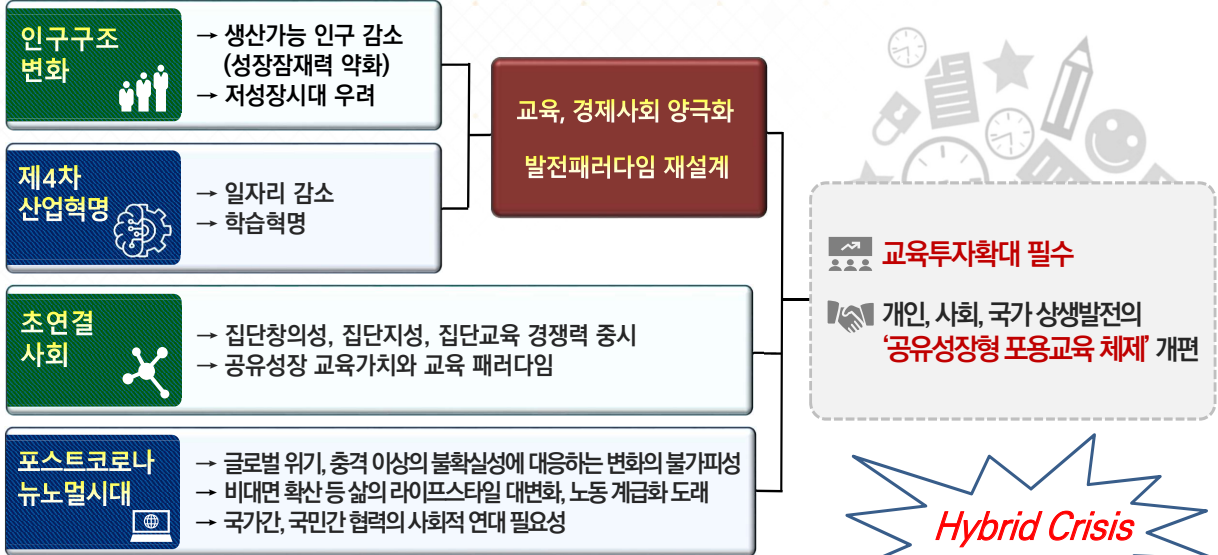
연도	내용
2001	- 서울대 교수 20명(장희익 교수 등):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
2002	- 서울대 총장: '세종시 공과대학 제2캠퍼스 신설안'
2003	- 정진상 교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안'
2004	- 민주노동당 총선 공약: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서울대 학부 폐지론'
2007	- 정동영 후보 대선 공약: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 권영길 후보 대선 공약: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서울대 학부 폐지'
2010	- 서울대 총장: '공과대학 세종시 이전안'
2011	- 교수단체연합: '국립교양대학 신설안'
2012	- 반상진: '한국형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방안' - 김상곤 교육감: '통합기초교양대학안' -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 '서울대 일부 단과대학 세종시 이전' -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교수단체연합: '대학연합체제 구성 및 공교육 민주화안'
2014	-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 공동 공약: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안'
2015	- 교수단체연합: '대학통합네트워크안'

출처: 은수진(2019). 재인용.



### 3. 대학연합체제 논의 배경은?

#### 나 시대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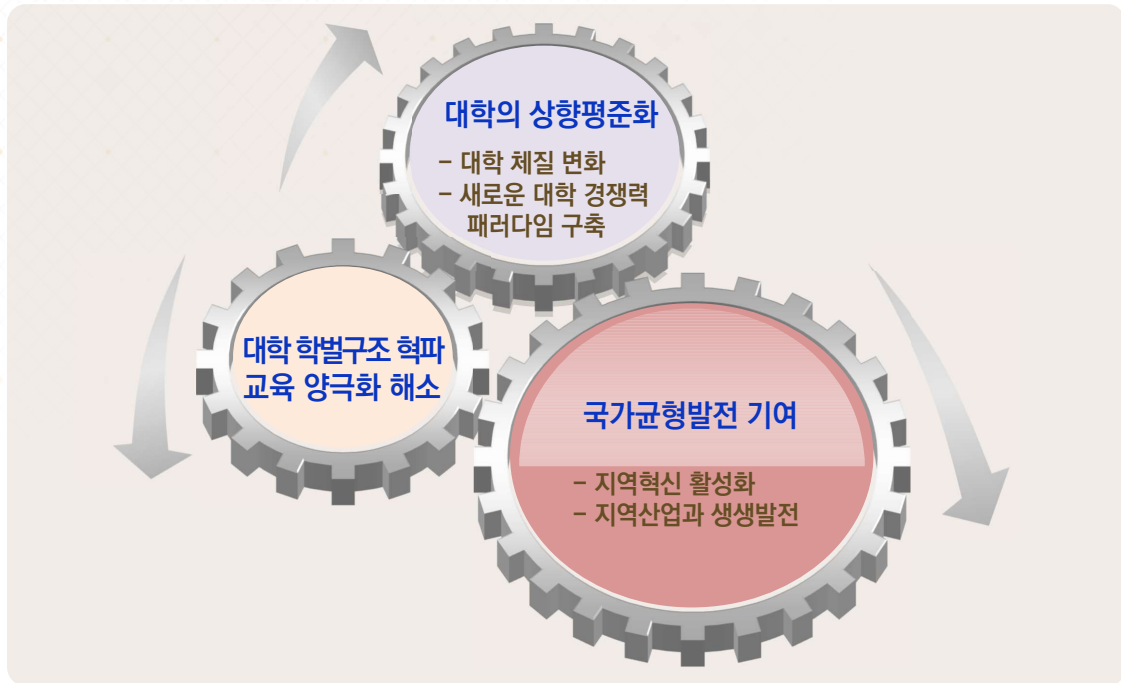
- ❖ 한국의 천연자원과 인구 규모 등 내적 요인 → 경제성장의 임계점 가능성
- ❖ 자원 공유와 연계를 통한 공유성장체제 구축 마련 필요 → 교육의 핵심영역

### 3. 대학연합체제 논의 배경은?

#### 나 시대적 배경

-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전후하여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변형적 발전국가 전략에 의한 차별과 배제 논리 심화,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
- 경제사회 초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어떻게 변혁해야 하는가?
- 저성장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잠재력의 핵심 요인인 대학은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 ✓ 학령인구 감소 현상 →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요인 →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축 →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편 등 **확산지향적 접근 지향**
  - ✓ 노동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래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절실히 요구
- 결국 국가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DNA는 대학의 경쟁력이 아닌가?

## 4. 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한가?



## 4. 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한가?

### 가 국가균형발전 기여의 필요성

-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화 현상 심화  
 ✓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 2010(49.21%) → 2019(50.02%)
-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

〈표 1〉 취업률 및 진학률(2019)

구분	대학			서울대학교 (본교)	고려대학교 (본교)	연세대학교 (본교)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률	63.3	66.6	61.3	70.9	73.3	72.5
진학률	6.8	9.1	5.3	28.7	19.1	20.0

〈표 2〉 초임 급여 평균 구간 및 구간별 취업자 비율(2019)

구분	출업자	분석대상자		월소득액(백만원)		구간별 비중				
		명	%	평균	중앙값	<100	100≤<200	200≤<300	300≤<400	≤400
전체	323,881	160,411	49.5	2.54	2.25	2.1	31.2	40.7	18	8.1
수도권	125,391	62,563	49.9	2.76	2.5	1.8	23.3	38	25.3	11.6
비수도권	198,490	97,848	49.3	2.4	2.15	2.2	36.2	42.4	13.3	5.9

\* 조사기준일 : 2019.12.31.

\* 4년제 일반대학 기준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및 201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4. 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한가?

### 가 국가균형발전 기여의 필요성

#### 고등교육투자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 ✓ 나원희·전영준(2017)의 연구, 1998~2013년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공교육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나원희·박진백(2018)의 연구, 고등교육비 수준이 OECD 평균 미만인 국가의 경우 고등교육비와 경제성장률 간에 음(-)의 관계, 반면에 고등교육비 수준이 OECD 평균 이상인 국가의 경우는 고등교육비와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관계로 분석

#### 고등교육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 ✓ 최정은·홍성훈(2017)의 연구, 2013년 J지역 거점 국립대의 산업 간 직접 및 간접 효과의 생산 유발효과는 4,761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5,096명, 지역 주민의 소비적 지출의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5,461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총 5,927명 추정
- ✓ Felsenstein(1996)은 미국 Northwestern 대학이 시카고 광역경제권에 미친 고용 유발효과는 총 10,447명, 총산출 유발액은 5.05억 달러, 고용 승수는 1.55로 추정

## 4. 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한가?

### 나 대학 학벌구조 혁파와 교육양극화 해소의 필요성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결과(2020):
  - ✓ '학벌주의에 대한 변화 전망' 질문 - 국민의 78.7%가 대학 학벌주의 현상이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 심화 전망
  - ✓ '대학 서열화에 대한 변화 전망' 질문 - 국민의 82.9%가 대학 서열화 현상이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 심화 전망

□ □ 대학연합체제 → 대학의 상향평준화 촉진 → 학벌에 의한 지위권력과 공간권력(김종영, 2020)의 균형화

- ✓ 대학연합체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학벌지향 고용관행 혁파를 위한 **사회개혁의 핵심 고리**

□ □ 대학(특히 국립대)의 공공적 가치 실현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

- ✓ 국립대의 저등록금 정책을 통한 고등교육기회 확대
- ✓ 2018학년도 한국 대학등록금 국공립대 세계 8위(\$4,886), 사립대 세계 4위(\$8,760)
- ❖ 2017년 미국 뉴욕주 대학등록금 무상, 테네시주, 오리건주, 미네소타 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실시
- ❖ 2018년 뉴욕대(NYU) 의대생 무상교육
- ❖ 2019년 뉴멕시코 주 대학등록금 무상 교육 실시 계획 발표
- ❖ 2020년 바이든 교육공약, 2년제 community college 무상교육, 중간층(\$125,000 이하) 대상 4년제 공립대학 무상교육

## 4. 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한가?

### 다 대학의 상향 평준화 : 대학의 체질 변화와 새로운 대학경쟁력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시대 전환기 협력·연계 기반의 공유성장 대학경쟁력 패러다임 전환
  - ✓ 개별 대학 경쟁체제는 소수 대학만 생존하는 체제로서 **고등교육 생태계 훼손 → 생태계 회복탄력성 구축**
  - ✓ **대학의 집단경쟁력 가치와 공유성장 포용교육체제 실현**

문민정부  
(1993~1998)

- **교육의 세계화, 시장화 담론 도입:**  
교육의 시장화 가치 중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998~2008)

- **교육민주화 패러다임:**  
교육의 공공성 및 공평성 가치 중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08~2017)

- **교육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교육의 자율과 경쟁 가치, 시장 원리 중시

문재인 정부와  
미래 방향

- **공유성장 포용교육패러다임(?):**  
집단경쟁력, 집단지성, 집단창의성, 집단문제해결능력 등  
'공유성장 포용교육' 가치 중시

## 4. 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한가?

### 다 대학의 상향평준화 : 대학의 체질 변화와 새로운 대학경쟁력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 대학연합체제는 부족한 교육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대학의 체질 변화

- ✓ 한국의 천연자원과 인구 규모 등 내적 요인 → **경제성장의 임계점**
- ✓ **대학연합체제는 자원 공유와 연계를 통한 공유성장체제로서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

#### □□ 따라서 향후 대학연합체제는 국가혁신의 DNA,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

- ✓ 21세기 대학개혁은 대학간 교육연구 협력 체제 구축이 대세이고, **지식공유와 가치공유 확산을 통한 국가혁신 동력으로서 새로운 대학 경쟁 체제 구축**



## 5. 국가책임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향과 구조는?

### 가 개념

-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는
  - ✓ 대학 간 물질·인적 자원 공유와 연계로 교육과 연구 역량의 상생 성장을 꾀하고,
  - ✓ 이를 통해 대학교육과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여
  - ✓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아닌 대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체제를 의미함.

### 나 방향

#### 내재적 역량 강화

대학의 체질 개선: 공공성, 책무성, 민주성, 자율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

- 정부에 순응하는 대학이 아닌 **대학간 자율 결정 권한 확대**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자율적 특성화(학풍), 산학협력체제 구축 → 상향식 추진 방식

## 5. 국가책임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향과 구조는?

### 나 방향

#### 외재적 역량 강화

#### 대학간 연계협력을 통한 대학 공유성장 체제 구축

- 학벌주의 타파, 사회양극화를 완화하는 계층사다리 역할의 중심축(대학의 본질적 기능 회복)
- **국립대연합체제 + 공영형사립대 + 건전 사립대 육성 + 대학간 컨소시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학체제 대전환을 통한 대학균형발전과 기초체력 강화(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상생 발전)**

#### 한국판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 (추격형 → 선도형)

- 대학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대학 공동학위·복수학위 추진 지원 (북미, EU, Asia권 대학)

#### “한국판”이라 명칭한 이유

- ✓ 선진국과 같이 대학연합체제로 자율적인 대학운영체제(governing body) 운영 유사
- ✓ 궁극적으로 연합체제내에서 공동학위제와 학생선발의 공동 기준 설정 등
- ✓ 국립대와 사립대연합체제 등 한국교육의 서열구조, 과열된 대입 경쟁, 사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보완이기 때문임.

## 5. 국가책임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향과 구조는?



## 5. 국가책임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향과 구조는?

### 나 “한국판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기본 운영

#### A. 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필수조건

지역대학발전지원법(가칭)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제정을 통한 대학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대학간의 지역혁신체제(RIS)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

#### B. 유형별 국립대연합체제 운영

연구중심 국립대 연합체제 + 교육중심 국립대 연합체제 + 평생·직업교육중심 국립대연합체제

##### 유형별 “(가칭) 국립대연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 「(가칭)국립대연합운영위원회」는 국가로부터 국립대학 경영 권한을 위임받는 주체이자 상위 의사결정기구  
→ 대학간 상호 자율협력체제 및 공조체제 모색할 수 있는 **대학자치 운영기구**
- ✓ **위원회의 구성**은 각 대학의 총장 및 교수 대표, 산업계 인사 및 사회 저명인사,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 등
- ✓ 위원회는 정부와 국립대학간의 재정 및 정책 등에 관한 **조정기구(coordinating agency)의 성격**

## 5. 국가책임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향과 구조는?

### 나 “한국판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기본 운영

#### B. 유형별 국립대연합체제 운영

유형별 국립대연합체제 내에서 교육과정과 강의 개방, 학점교류, 교수교류 등 확대

✓ 전체대학(산업대, 교대, 전문대 포함) 재적 학생 수 약 330만명 중 서울대 포함 국립대 학생수는 약 73만명으로 약 21.9%

국립대의 “학력인증제” 도입·운영

✓ 국립대 학생들의 질 향상과 사회적 신뢰 구축

국립대 “공동 학생선발제” 도입·운영

✓ 유형별 국립대연합체제 내에서 학생선발 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공동 학생선발제 운영

✓ 단순 우수 성적 학생 선발이 아닌 학생들 잠재성 중심의 역량 기준 선발 등 가치기준 선발제

국립대의 “공동학위제” 도입·운영

✓ ‘공동학위제’ 통해 동일한 졸업장 수여가 가능함으로써 국립대연합체제 사실상 완성

✓ 공동학위제를 통해 국립대 학생들의 질 향상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 5. 국가책임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향과 구조는?

### 나 “한국판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기본 운영

#### C. 한국판 국립대-사립대연합체제 운영 (장기적인 방향)

- 궁극적으로 국립대 연합체제 진입을 원하는 공영형사립대와 건전 사립대에도 개방하여 전반적인 대학구조를 연계·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공유성장형 대학체제의 대전환” 구현

#### D. Global 대학학위체제 구축 (장기적인 방향)

- “한국판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교육가치사슬 모색
- 이 체제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국가 대학체제와의 학위 국제적 통용성 확보

## 6. 나가는 말

###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실현된다면 .....

- 21세기 ‘집단창의성’, ‘상호 협업능력’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대학체제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지역 소재 대학의 기초 체력 강화**
- 지역인재 유출 감소,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입시 사교육과 선행학습 **사교육 근절, 공교육 정상화**
- 대학입시 경쟁을 대학 내 학문경쟁으로 **고등교육의 체질 전환**

[참고문헌] 은수진(2019).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선택 아닌 시대적 과제.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13호.

## 6. 나가는 말

Stiglitz, Joseph E. (2012).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노동시장(교육시장 포함)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법률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대개 분배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교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작동되도록 하는 것...**

**“예측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thinking outside the box)가 필요한 교육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면...”**

**‘미래를 대비한 교육(education for the future)’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education creating the future)’**

→ **교육이 국가혁신과 포용국가(균형발전)를 위한 DNA로서의 역할 수행**



【발표】

##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배상훈(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학생성공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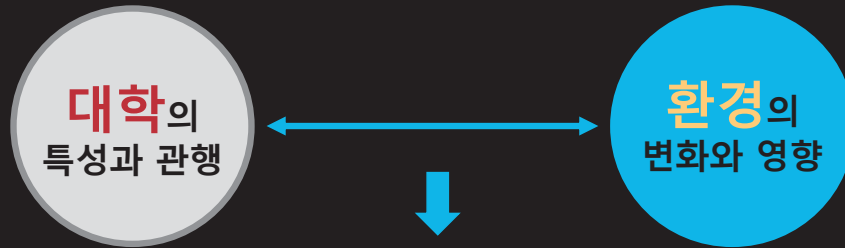
#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공유대학 정책적 의의와 성공요건

배 상 훈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학생성공센터장)



## I. 고등교육 생태계 진단과 방향

## 정책 : 대학 + 환경의 상호작용



## 대학 정책

### 배경 1: 구조개혁

줄어든 학령인구  
한계 상황의 지방대학  
퇴출 중심(-) 구조조정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

### ✓ 새로운 구조개혁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넘어 연대와 공존  
시너지(+) 내는 구조개혁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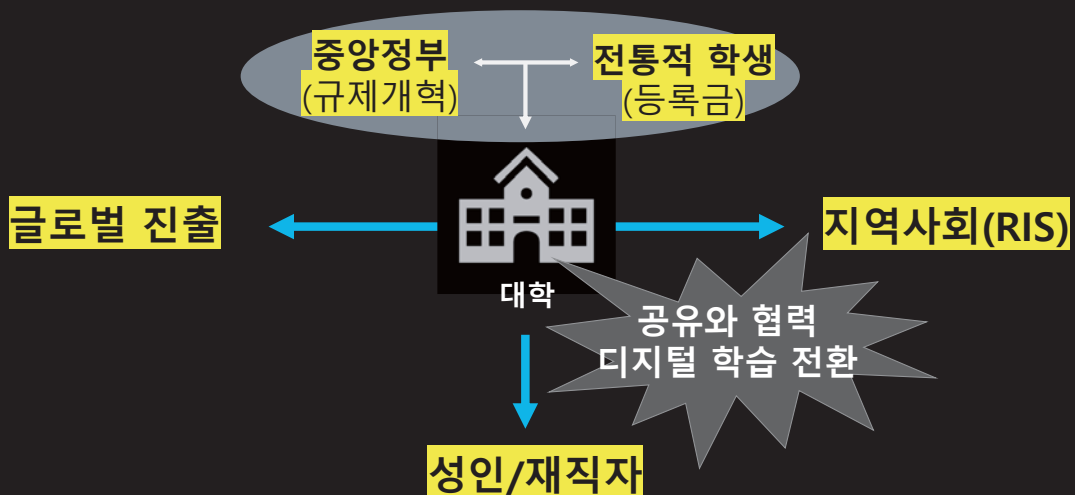
## 배경 2 : 생존전략

등록금 동결과 정부 의존 심화  
지역사회(지자체)의 낮은 관심  
담보 상태의 국제화  
혁신을 옥죄는 아날로그 시대 규제

### ✓ 새로운 생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무대의 확대  
전략의 전환

생존+지속가능발전 전략 = 1)무대의 확대+2)전략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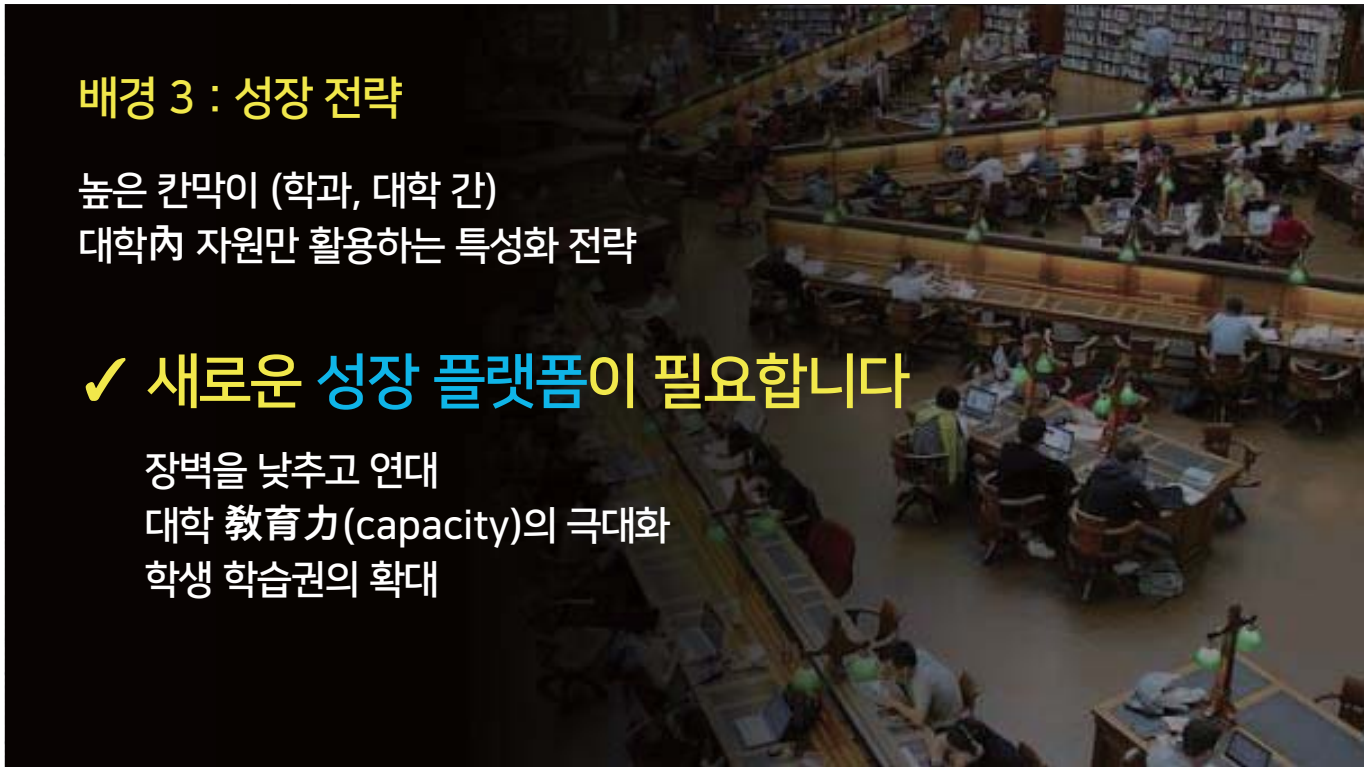


### 배경 3 : 성장 전략

높은 칸막이 (학과, 대학 간)  
대학內 자원만 활용하는 특성화 전략

### ✓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장벽을 낮추고 연대  
대학 敎育力(capacity)의 극대화  
학생 학습권의 확대



### 배경 4: 코로나 19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

공간(space) → 배움(learning)의 장





## 공간 혁명 시간 혁명

### 수업 선택권 확대

언제, 어디서나  
해외에서  
일하다가  
다른 대학 교수님 강의까지



## 공유대학 : 지금이 적기입니다.

위기 불감 → **위기 가시화**

자급자족 시대 → **공유와 협력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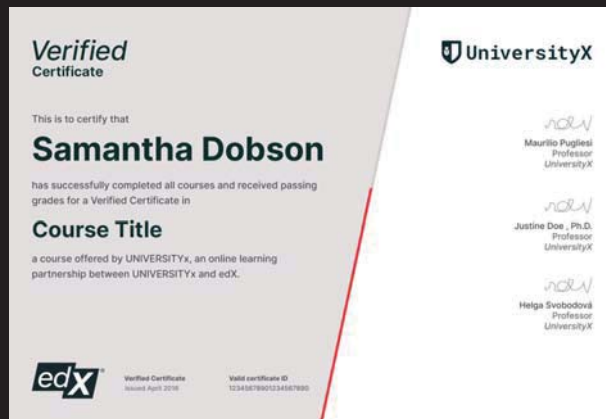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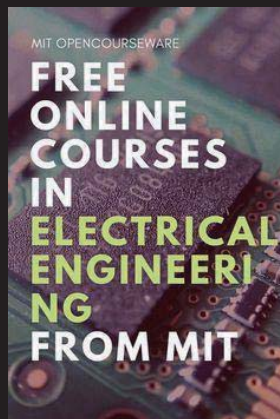
아날로그식 학점 교환 → **디지털(온라인) 학습 환경**

물리적 캠퍼스 의존 → **학습 플랫폼 (한계비용=0)**

## II. 해외 동향



## 2001 MIT





# 2012 Udacity /COUSERA

: 4조 6천달러 (5,000조원) 교육시장

*It was going to try and build the digital higher education platform to rule them all.*



매년 5만 달러를 내고 받는 학점을 무료로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모든 분야의 교육을

## 디지털 기반 공유 학습 플랫폼 (MOOCs)

구분	Udacity	Coursera	edX
설립주체	기업	대학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MIT 공동 설립)
파트너	기업, 대학	기업, 대학	대학 (140개)
역할	주체	플랫폼 운영, 강의 제공 및 운영	플랫폼 제공
	파트너	강의 커리큘럼 개발 지원	강의 개발 및 운영, 영구
투자 기관	기업	대학, 기업	재단
플랫폼	자체 개발	자체 개발	Open edX 플랫폼 (오픈 소스)
주요대상	취업/이직 준비생	대학생, 일반인	대학생, 일반인
파트너 수	12기관	149개 대학(29개국)	60기관
주제영역	IT공학 분야	인문사회, 교육, IT공학 등 모든 분야	인문사회, IT공학 등 모든 분야
강의 수	200개	3,800개	2,640개
학습자 수	1,150 만 명	4,500 만 명	2,400 만 명
자격증	40개	420개	292개
학위	1개	16개	10개

출처: 김미정 (2020) MOOC의 특징점 및 동향, 대학교육 210호

### 디지털 학습 플랫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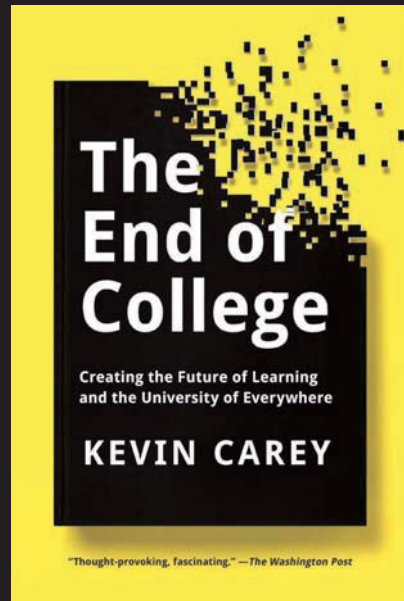
가장 부유하고 인기있는 대학들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의 희소성을 고집하던 500년 간의 고등교육 경제학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 하지만,

희귀하고 비싼 장소로서의 특권에 의존하던 교육기관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 비결은 바로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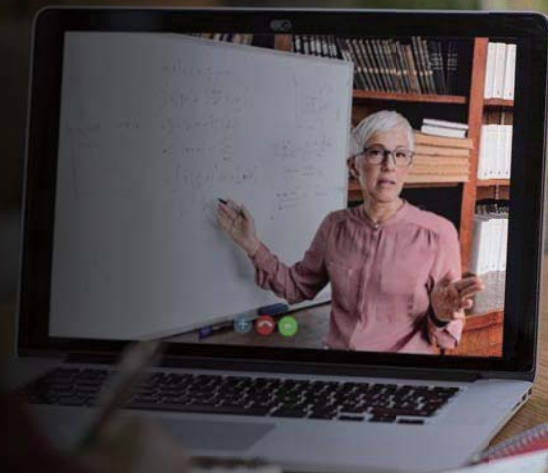
앞으로 펼쳐질 큰 무대를 대비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대학만 진정한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뿌리깊은 문화적 신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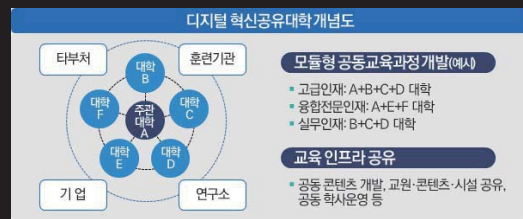
## III. 공유대학

### 개념과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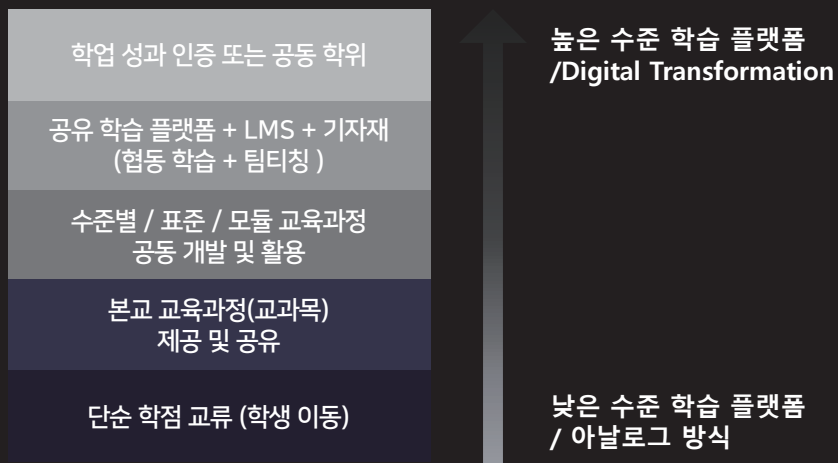
# 개념

대학이 동료 대학이나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육, 연구, 특성화 역량 (institutional capacity)을 극대화하고,  
 재학생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지역 혁신(RIS)까지 도모하는 **학습 플랫폼이자 생태계(ec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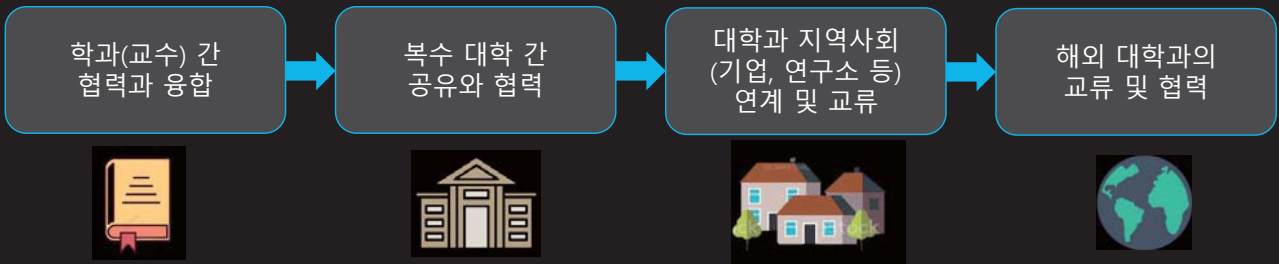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0)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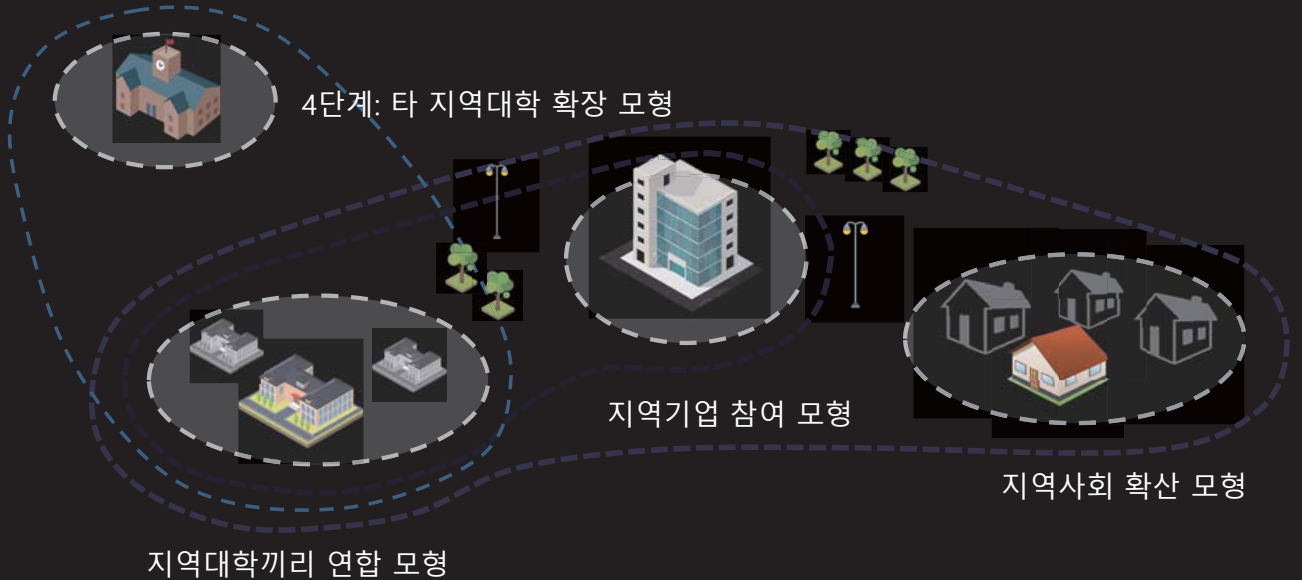
# 공유대학 : 공유의 밀도(density)



## 공유대학 : 대상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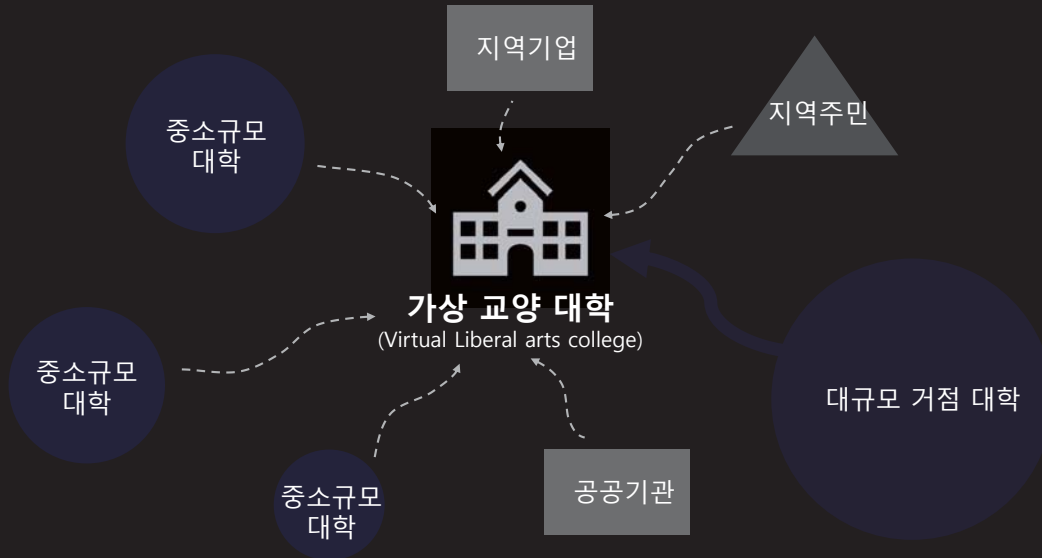


## 공유대학 :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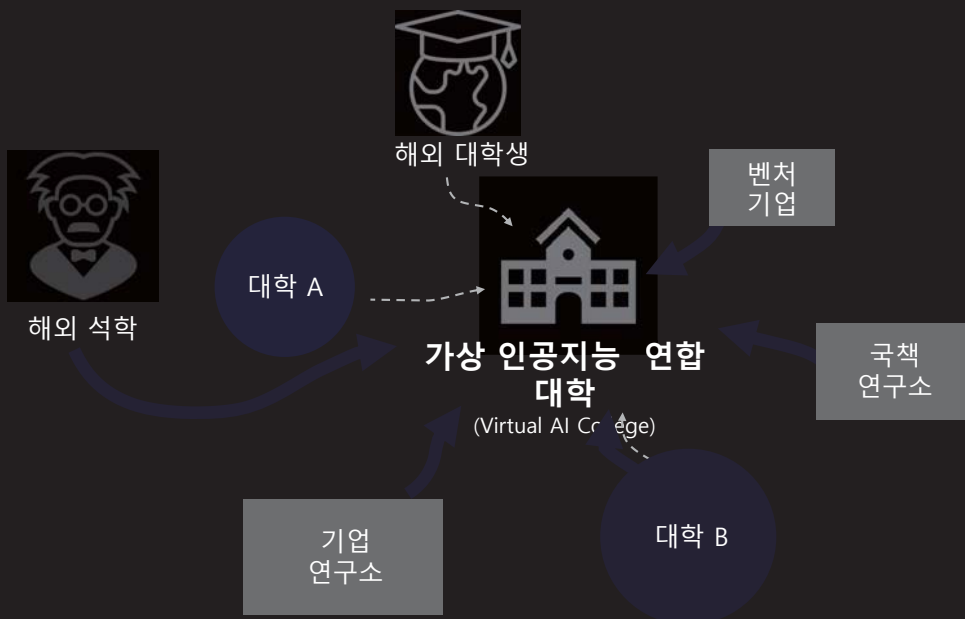
— 교수 --- 학생

## 공유대학 모델 1 : 거점대학 제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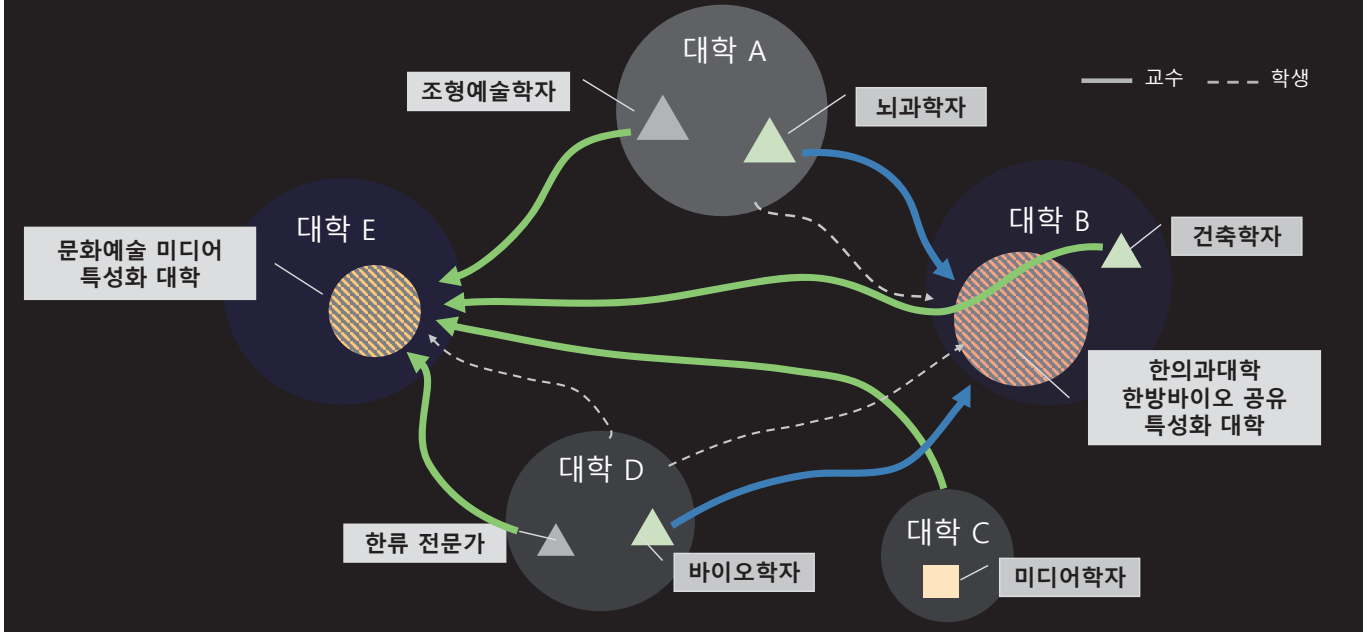


— 교수 ---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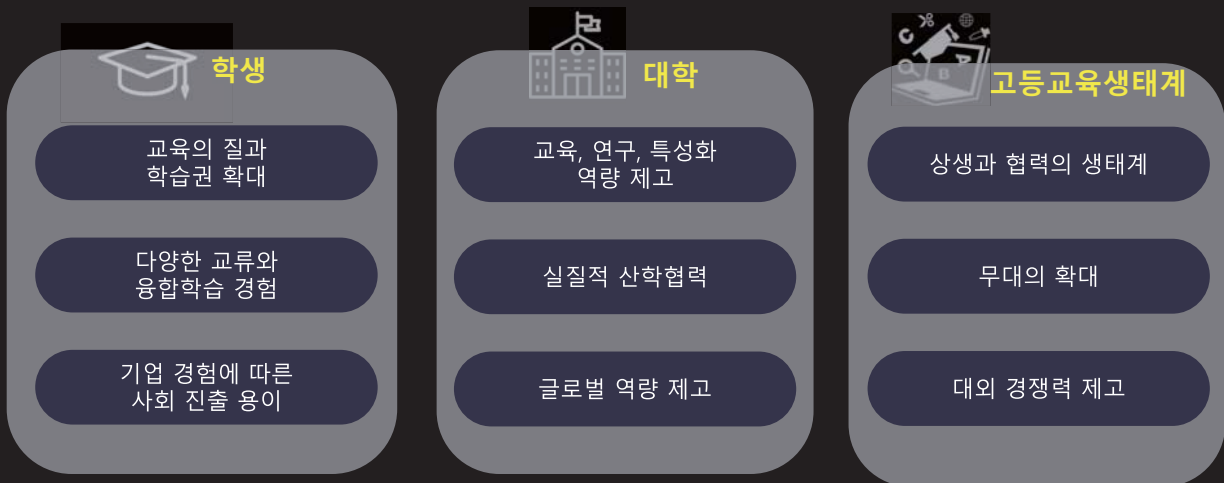
## 공유대학 모델 2 : 대학 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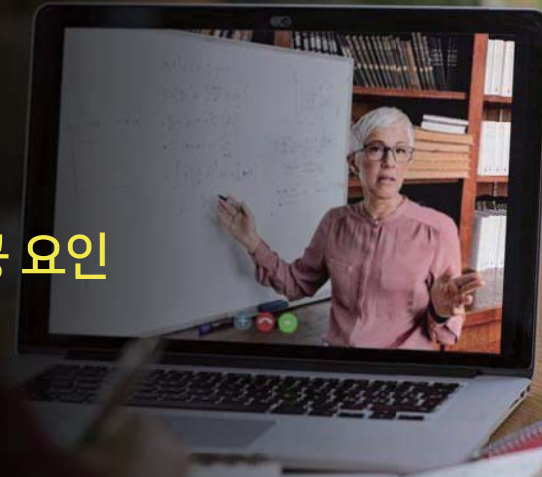
## 공유대학 모델 3 : 대학 특성화형



## 공유대학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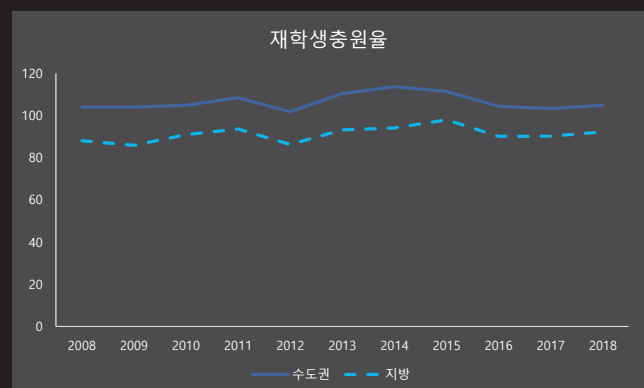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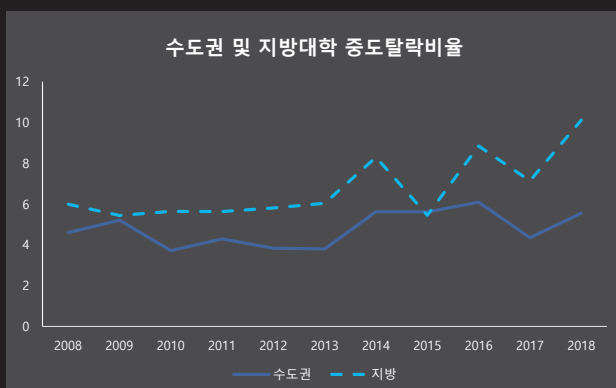


## IV. 정책적 의의와 성공 요인



## 지방대학 정책으로서 공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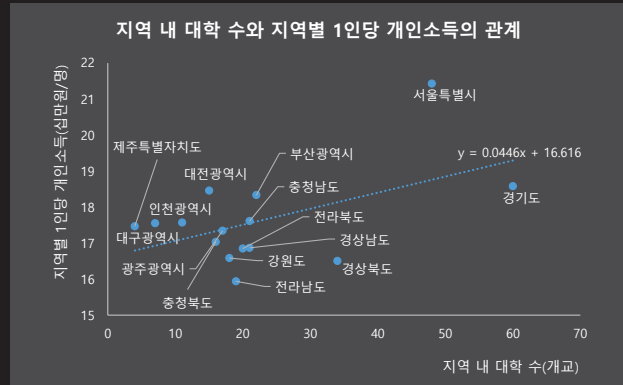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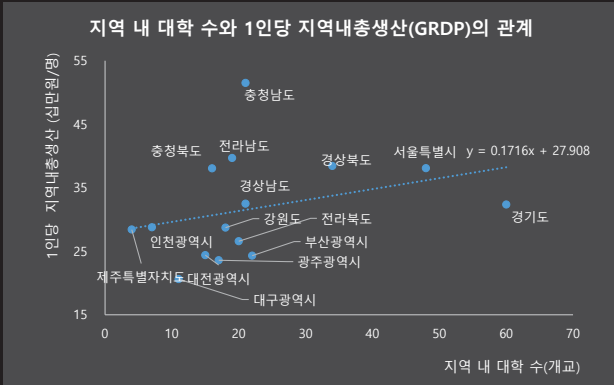
지방대학 위기 : 낮은 충원, 높은 중도 탈락, 낮은 충원



출처: 배상훈, 한승이, 변보경 (2019) 통계로 살펴보는 지방대학의 위기, 대학교육 2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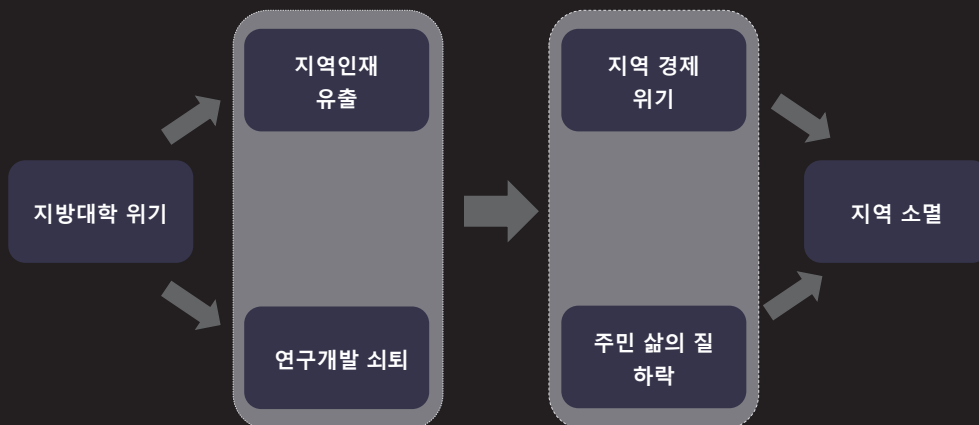
# 지방대학 정책으로서 공유 대학

지방대학의 존재 가치 : 지방대학 + 지역 총생산, 1인당 개인소득



# 지방대학 정책으로서 공유대학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소멸





## 실패 요인

- |    |                            |
|----|----------------------------|
| 01 | 거점 대학에 종속하는 모델             |
| 02 | 부정, 비리, 부실 대학의 피난처가 될 때    |
| 03 | 시너지 없는 단순 병합 모델            |
| 04 | 학생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수학습, 학사관리 |
| 05 | 취업, 창업, 진학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을 때  |
| 06 | 교육적 측면보다 산업, 경제 측면만 강조될 때  |
| 07 | 대학차원 지원과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
| 08 | 정부 규제개혁 없고, 대학 간 신뢰도 부족할 때 |

## 성공 요인 (지원 방안)



### 학생

- 온라인 학습 기자재 지원
-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personalized learning)
- 참여 인센티브
- 공동 이수증, 학위 수여



### 교원

- 책임 학점 인정
- 조교 등 인력 지원
- 업적 평가 반영
- 우대 방안 마련(연구비, 성과급, 연구년 선정 등)



### 대학

- 모듈형 교육 과정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 학사제도 개선 (대학 간 협력과 개방)
- 취업, 창업, 진학과 연계
- 취준생, 재직자, 성인학습자용 단기 프로그램 운영



### 정부

- 규제 개혁 (규제 샌드박스)
- 지속적 재정 지원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대학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리더십 발휘

## 공유대학 : 지금이 적기입니다.

각자도생  
자급자족  
생존 전략 한계



디지털 학습 플랫폼  
교육 테크놀로지  
활용 확대

정부의 지원 확대

【토론 1】

## 대학 간 개방형·공유형 대학교육 모델 구축 사례

이은진(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



【토론 1】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 - 제2차 고등교육정책포럼 - 대학 간 개방형·공유형 대학교육 모델 구축 사례

---

이은진(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



경상남도 지역 혁신 플랫폼

# 경남형 공유대학 <USG 공유대학>

## I 추진 배경

- 2020년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핵심 인프라인 경남형 공유대학 USG 공유대학\* 설립 추진
  - \* USG 공유대학(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 : 경남도와 17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공급하는 플랫폼 형태의 공유형 대학 모델
- 대학은 지역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됨
  - 우리 지역 대학은 지역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지역 혁신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경남은 전국 4위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대학의 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상태
  - 교육혁신, 지역혁신, 산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경남형 공유대학 설립

## II 필요성

- USG 공유대학을 통한 온라인 기반 대학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의 시·공간적 제약 해소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적 교육생태계 확립
- 경남 지역 대학교육 혁신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상향평준화를 통해 경제 규모에 맞는 전국 4위권 수준의 대학의 위상 달성
- USG 공유대학 신설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관리 체계 마련 필요
  - LMS 시스템, 자원관리 시스템, 학사관리 시스템, 공통교양 플랫폼, 전공 공유플랫폼을 통한 공통의 전공·교양 등 학사관리
  - 소속 대학의 학사 학위와 USG 융합 복수전공 학위 동시 수여, 앵커 기업-USG 인증 등 연계 추진

### Ⅲ 추진개요

#### □ 교육 목표

-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산업혁신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혁신 인재 양성
- 지역과 소통·협업하며 네트워킹 소양을 갖춘 사회혁신 인재 양성

#### □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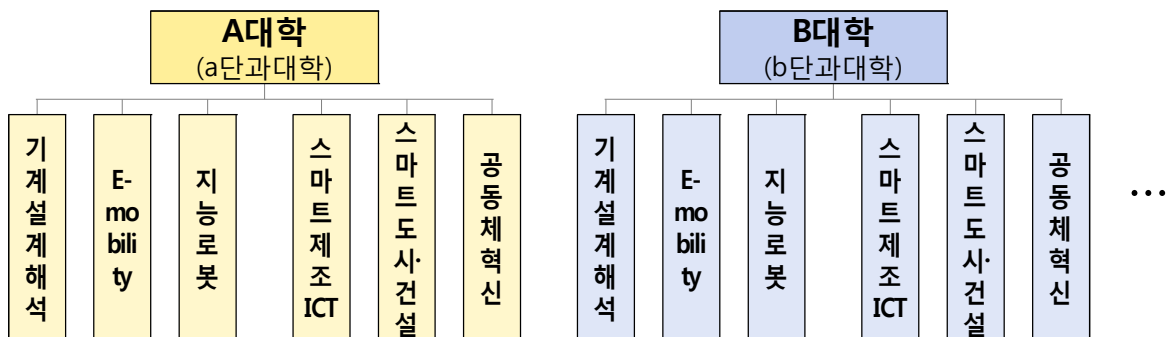
- 대학의 온라인 교육인프라 및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동 복수학위를 추진하는 USG 공유대학을 설립하여야 하나, 관련 법령의 규제\*로 인한 제한으로 단계별 추진

\* 관련 법령 규제사항 (참고 참조)

- 규제사항 : 학교의 종류, 설립 및 조직,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 법령조항 : 고등교육법 제2조, 4조, 19조, 21조, 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4조의2 등

- **1단계** (융합 전공 신설) 핵심분야 참여대학 내 6개 융합 전공별 주관 학과 선정 및 복수전공 이수를 위한 USG 융합 전공을 개설
- **2단계** (단과대학 신설) 핵심분야별 참여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참여대학 내 3개 핵심분야 6개 융합전공)을 운영하는 USG 공유형 단과대학\* 설립

\* USG 공유형 단과대학은 참여대학 내 단과대학 형태의 공유대학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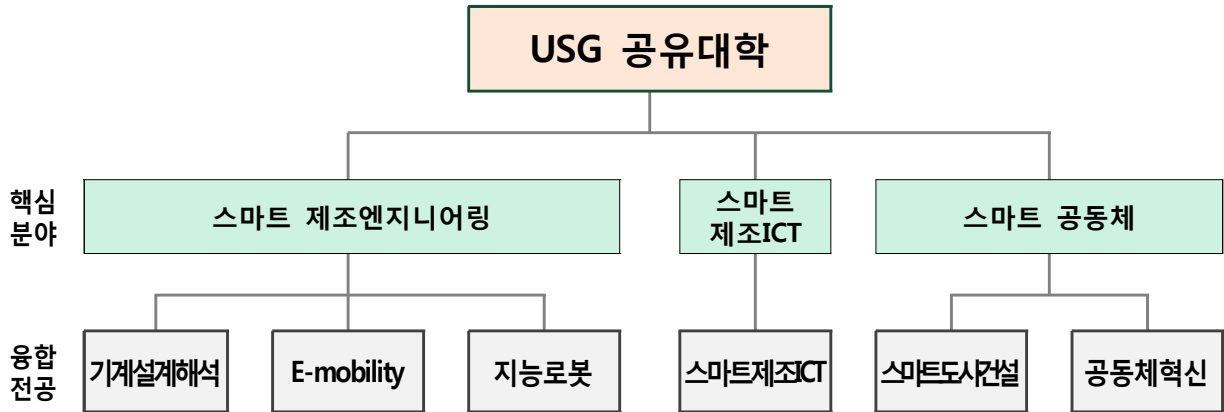


- **3단계** (공유대학 신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시 USG 공유대학 신설 추진



## IV 세부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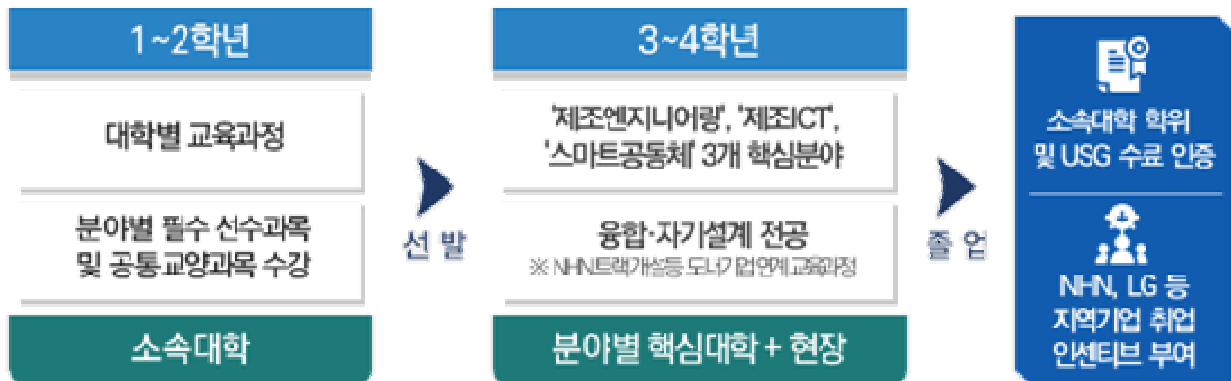
### □ USG 공유대학 조직 및 전공



전공  
내용

- **기계설계해석**  
: 스마트공장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 **E-mobility**  
: E-mobility 제조 산업을 선도하는 전기전자 제어시스템 설계 전문 인력 양성
- **지능로봇**  
: 스마트공장에서 필요한 지능형 제조 로봇, 지능형 협동 로봇, 지능형 서비스로봇에 필요한 기계장치, 제어장치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제조 ICT**  
: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 및 ICT/SW 기술을 결합한 제조 ICT 산업으로 전환에 필요한 ICT/SW 융합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 **스마트도시·건설**  
: 주택 건설 기능 군 공공기관이 집중된 특성화 지역인 경남에 필요한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공동체혁신**  
: 지역공동체 현안에 대한 문제분석 및 해결 역량을 갖춘 지역 전문 인력 양성

## □ USG 공유대학 교육과정



○ 융합 전공별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하고, USG 공유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콘텐츠/학사/자원 시스템, 줌 강의실, VR 강의실 등) 및 참여대학 간 학점교류 등을 바탕으로 공통교양과 전공과목을 수강

### ○ 학년별 교육과정

- 1, 2학년 교육과정: 전공별 선이수 교양과목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지원 가능
- 3, 4학년 교육과정: USG 공유대학 이러닝 기반 강좌 수강 후,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실습 및 현장 교육 이수

※ 2021년 3~4월 선발 후 2학기부터 복수전공 시작, 별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선이수 교양과목 수강을 대신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022년에는 정상적으로 1월에 선발하여 1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시작

## □ USG 공유대학 학생 선발 전형

### ○ 모집 일정 계획(안)

전형구분	기간	장소	비고
원서접수	'21. 3. 22.(월) ~ 3. 26.(금)	• 인터넷 접수 - USG공유대학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신청서, 학업이수계획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서	
서류전형	'21. 4. 1.(목)	• USG공유대학 홈페이지	• 개별 통보하지 않음
면접고사	'21. 4. 7.(수) ~ 4. 9.(금)	• 전공별 지정장소	• 별도안내
최종합격발표	'21. 4. 16.(금)	• USG공유대학 홈페이지	•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학사안내	추후 안내	• 경상대학교 컨벤션센터 3층 대강의실	
기타사항	• 복수전공 승인처리 절차는 원 소속대학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전공별 선발 인원

구분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CT	스마트 공동체		계
	스마트기계 설계해석	E-mobility	지능로봇	스마트 제조ICT	스마트 도시·건설	공동체혁신	
모집 인원	34명	33명	33명	100명	50명	50명	300명

○ 지원 자격

: 경남 도내 2~3학년 재학생 100명 (학과 구분 없음)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원소속대학에서 4학기를 이수한 학생(계절학기 제외)
- ② 신청 학기 직전까지 평균 평점이 3.0/4.5 이상인 자
- ③ USG 공유대학(융합 전공) 지원자는 4학기 이상 연속하여 이수 가능한 자

※ 가산점 적용 : 공인영어성적, 선이수 교과 이수

○ 선발 방법

선발단계	선발인원 (명, %)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 총점
		직전학기까지 평균평점	가산점		면접	
			외국어	선이수		
1단계 (서류전형)	450명 (150%)	100점	5점	20점	-	100점 (+25점)
2단계 (면접전형)	300명 (100%)	-	-	-	100점	100점

- 별도 선발 기준에 의해 핵심 분야별 선발
- 학점, 가산점(외국어 성적, 자격증, 선수과목 이수 여부) 우수 학생 선발
- 1단계 서류전형 : 서류전형 성적순 1.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최종합격자 선발 : 2단계 면접 평가 성적순으로 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우선순위
  - 면접 평가 점수 ⇒ 직전 학기 평균 평점 ⇒ 선이수 교과 이수 여부
  - ⇒ 공인 외국어 성적

**참 고**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선 방안**

※ 아래 표는 공유대학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임

개선 필요성	관련 법령	개선 방안
○ 지역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 - 지역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이 스스로 길러내기 위해 정원 조정 등 학사구조 개편 필요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학과 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현행)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 4대 요건 준수 (개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 적용 완화
○ 이동수업 기준 완화 - 공동 교육과정 또는 공유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밖에서도 수업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 완화 필요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이동수업 운영기준	(현행) 이동수업 대상, 시설·설비 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 (개선) 다수의 대학이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공간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계약학과 설치 -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역인재의 정주 유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현행) 계약학과 모집 단위를 기업으로 봄에 따라 계약학과 지원 시 1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개선) 다수의 대학, 다수의 기업 간 계약학과 설치가 가능토록 해당 기준 적용 완화
○ 공유대학 운영 - 지역 국립대, 사립대, 공립대 등 복수의 대학이 연합하여 대학 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인재 공동 양성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현행) 복수의 대학이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체제에 관한 법규 미비 (개선) 공유대학이 발급하는 학위 인정
○ 기타 규제혁신 - 교육혁신에 필요한 규제혁신 사항을 지역에서 신청하면 심의	법령, 지침, 사업계획 등에 있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대학 혁신 지원 및 제도 개선 병행



【토론 2】

## 공유형 대학원 설립을 위한 과제

---

홍진태(충청북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충북대학교 약학대학장)





## 【토론 2】

# 공유대학 설립을 위한 과제 : 충북 오송바이오텍 공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홍진태(충청북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충북대학교 약학대학장)

### 1. 서론

#### ○ 충북에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투자 필수

- 2019년 5월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대통령 및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지가 충북임을 재확인
- 충북소재 15개 협력대학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실무·연구 인력 양성을 학교발전전략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오송)은 바이오헬스관련 6대 국책기관, 국가 메디컬 시설 및 바이오 캠퍼스 등 국내 유일의 산·학·연·관이 집적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으로 100여개 기업, 오토텔릭바이오 등 100여개 벤처 연구중심 기업이 상주하고 있음

#### ○ 바이오헬스 인력수요를 충족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편이 시급함

- 2025년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근거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기술개발 시스템 혁신이 필요함
-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기업이 원하는 인력수요를 충족하고 산업기술혁신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개방형 산학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연구교류 및 정보공유 체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도입함으로써 COVID-19로 인한 고등교육 생태계 변화의 모델 도입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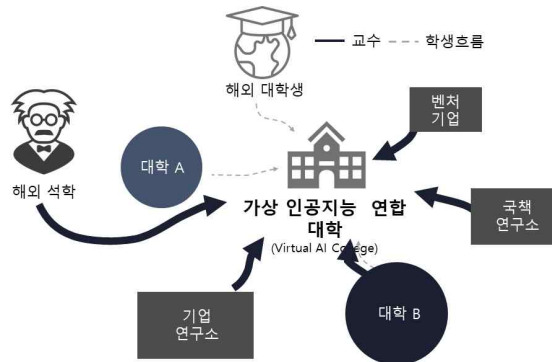
- 공유대학의 개념과 유형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검토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 충북지역 공유대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며, 실무·실습 강화 및 공동 연구를 통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으로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하고자 함

## 2. 중복형 공유대학 모델 : 오송바이오텍 공유대학1)

### ○ 오송바이오텍은 ‘대학 연합형’ 공유대학 모형

- 오송바이오텍은 개별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가상의 공유 플랫폼으로 15개 참여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모델임
- 법인을 통해 각 참여 기관의 합의와 규칙을 제정하고 가상의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학 연합형’ 공유대학 모델의 [그림]은 아래와 같음

〈그림〉 대학 연합형 공유대학 모델



출처 : 배상훈(2021). 공유대학:개념, 모델, 그리고 성공요건, 대학교육 210호 1

### ○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 선정

- 충북지역에서 대학의 바이오헬스 분야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교수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공급도 충분치 못하여 인력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충북 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이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각 기관에 재직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가상의 교육 연구 플랫폼을 제공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고 상생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영문명 : Union University of Osong Biotechnology

### 3. 오송바이오텍 공유대학 개요

#### ○ 설립목적

-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현장 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 15개 참여대학간 공동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학점 교류
- 복수학위제를 운영을 통한 공유대학 시스템 구축
- 대학-기업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고용 창출

#### ○ 참여대학 및 학과 현황(2021.02.10.기준)

〈표〉 핵심분야 참여대학 현황

핵심분야	참여대학*	학과수
제약바이오	건국대, 대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원대(8개 대학)	17
정밀의료·의료기기	강동대, 건국대, 대원대, 세명대, 충북대, 충북도립대, 한국교통대(7개 대학)	16
화장품·천연물	강동대, 건국대,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충북대, 충청대, 한국교통대(11개 대학)	23
융합학과	세명대, 한국교통대, 서원대(3개 대학)	5
계		61

\* 충북 참여학과 2개-충북대 의학과·수의학과

#### ○ 교육과정 운영체계

- 통합학사관리 시스템 도입 : LMS 등을 이용한 충북형 미네르바 시스템
- 공동교육과정 구축 : Bio-Pride 15개 참여대학 학과중심
- 오송바이오텍 전문인력 육성 : 3개 핵심 분야별 학사 및 석·박사급 인재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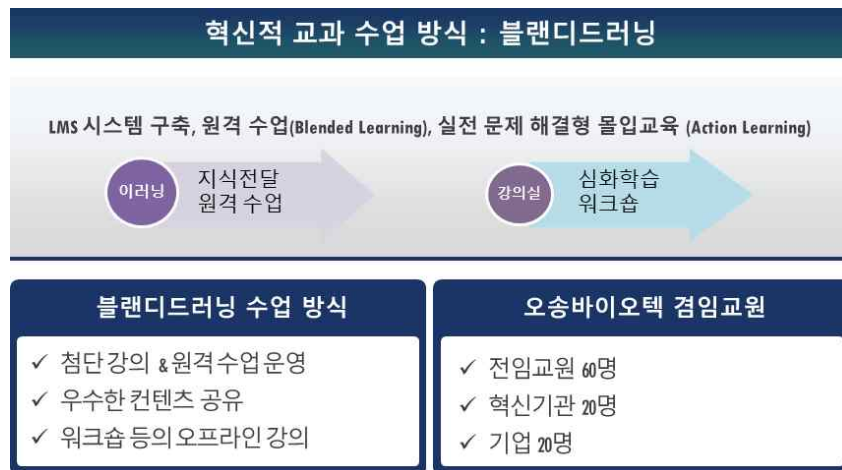
#### ○ 표준 교육과정 수립 전략

- Bio-PRIDE 핵심역량 설정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 핵심분야별 필수 교육과정 표준화 교과목 개발 및 개편
-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및 평가환류 실현

#### 4. 오송바이오텍 공유대학 수업 운영방식 및 이수모형도

##### ○ 수업운영 방식 특징

- 온오프라인 수업 방식을 채택하는 블랜디드러닝 수업 방식 채택



##### ○ 이수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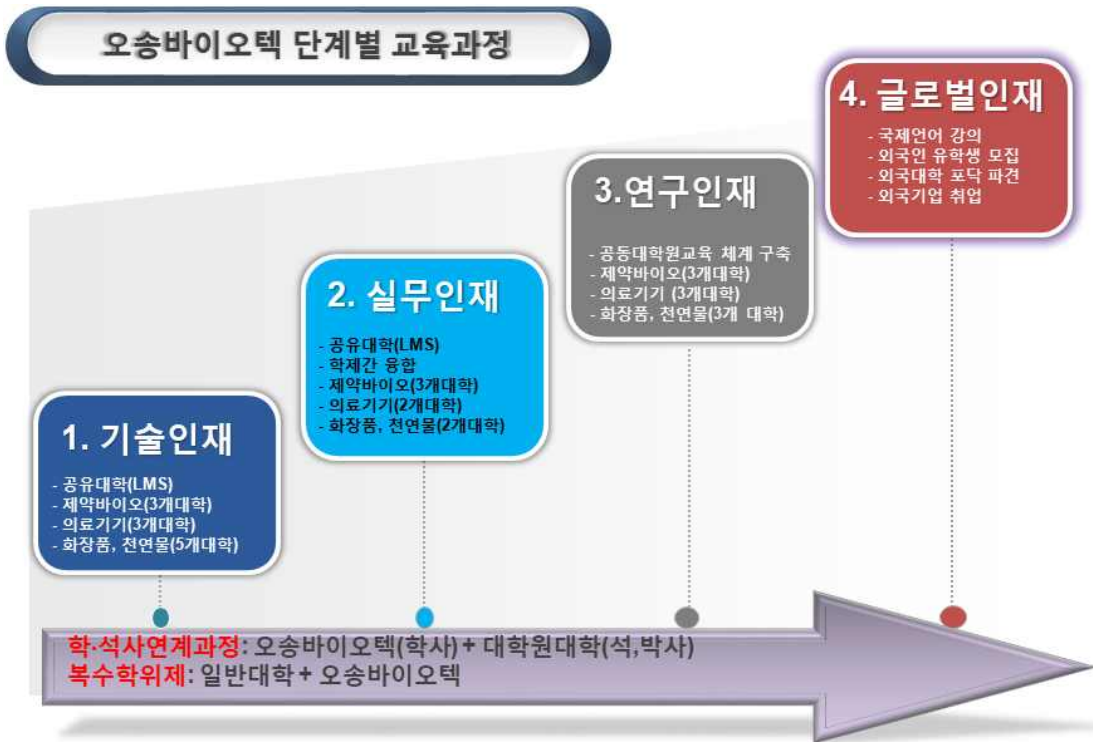
- 고등학교 재학 시 고교학점제를 통한 바이오헬스에 대한 수업 구성
- 대학교 1~2학년에 바이오헬스 선수과목 이수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대학교 3~4학년과 대학원 과정에서 오송바이오텍 교육과정 집중 이수
- 공유기업(2000여개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재교육 담당



## 5. 오송바이오텍 공유대학 교육과정

### ○ 대상과 수준에 따라 4단계 교육과정

- 기술인재, 실무인재, 연구인재, 글로벌인재로 구성



### ○ 오송바이오텍 국제화 : 글로벌 인재 육성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현장실습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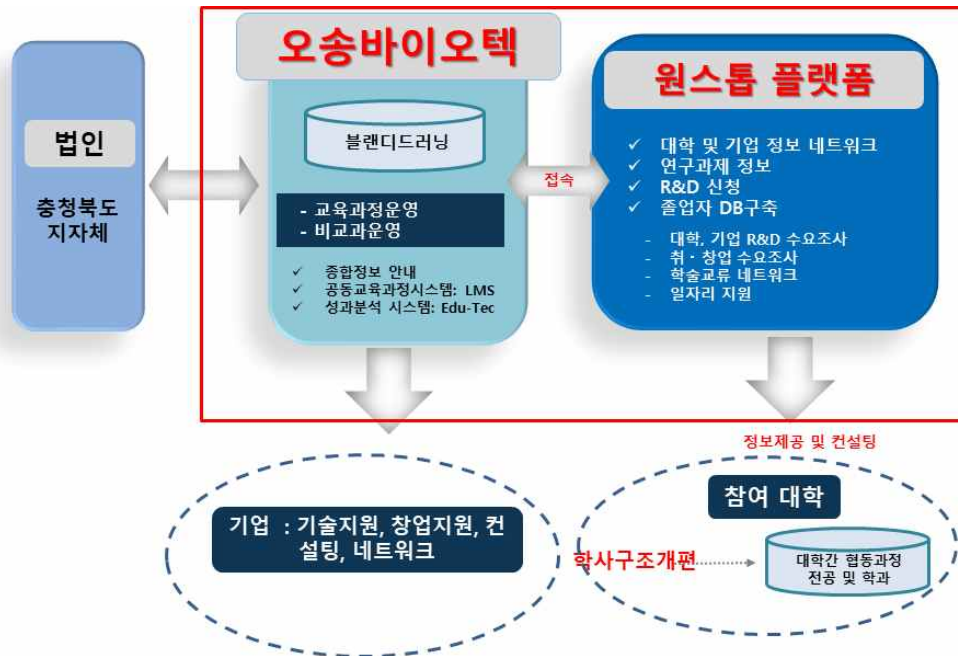
#### 글로벌마케팅과정

- 글로벌 실습 site 확보
- 5명 x 4 sites = 20명 선발
- 20명 x 2천만원/년 = 4억
- 학부 4학년 선발
  - ✓ 전공 교육 = 9학점/학기 : 온라인
  - ✓ 실습 교육 = 9학점/학기 : 현지 기업
- 석사2학년 선발
  - ✓ 전공 교육 = 6학점/학기 : 온라인
  - ✓ 실습 교육 = 3학점/학기 : 현지 기업
- 의무: 3년 근무
- '22년 봄학기 시행

## 6. 오송바이오텍 공유대학 지원 원스톱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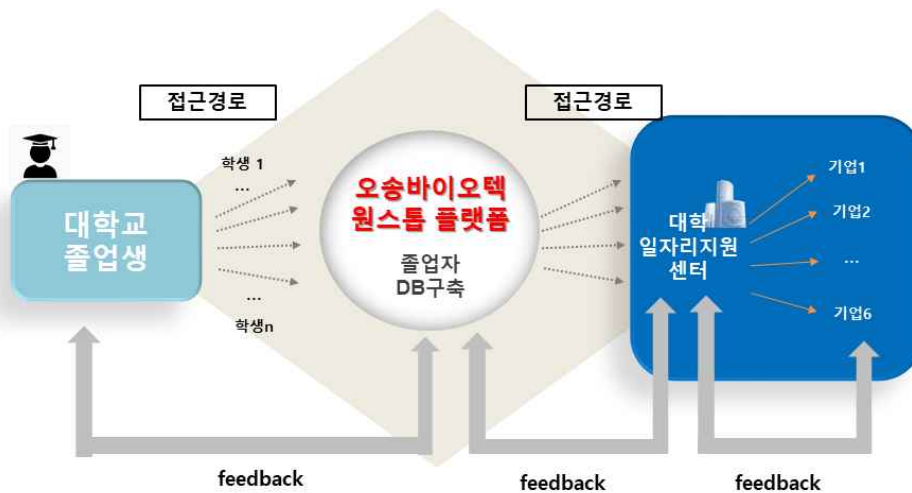
### ○ 오송바이오텍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 운영

- 원스톱 플랫폼은 대학 및 기업의 정보를 네트워크하며 연구과제 정보와 R&D를 신청하고 졸업자 DB를 구축하여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



### ○ 인재관리 모델 : 일자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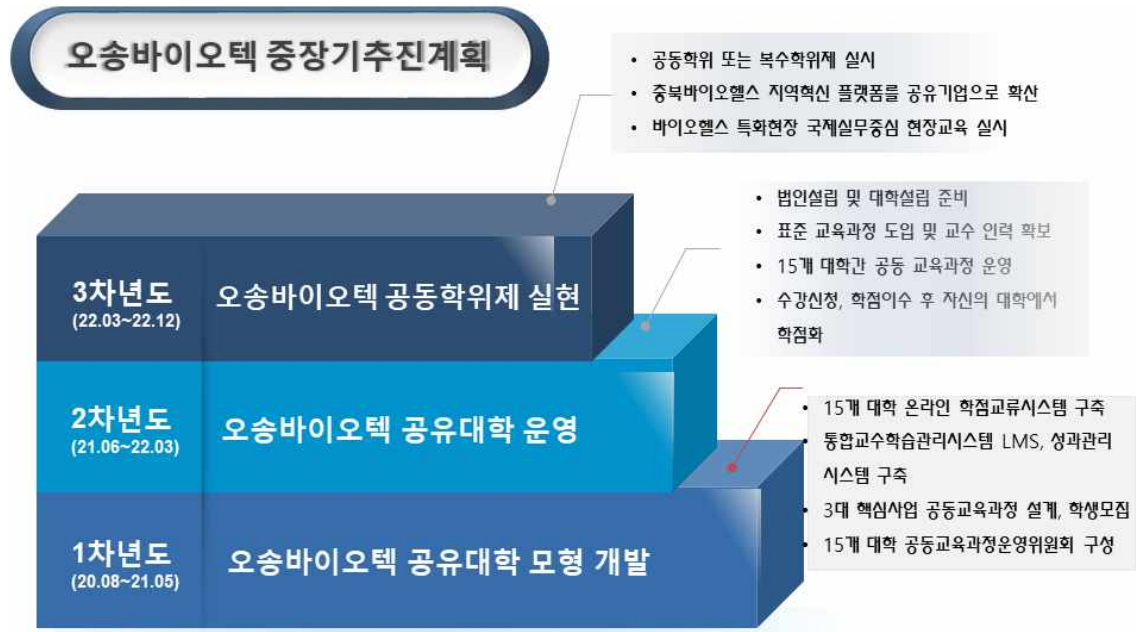
- 원스톱 플랫폼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재관리 모델로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와 기업 간 구직의 역할을 모색



## 7. 오송바이오텍 공유대학 중장기 추진 계획

### ○ 오송바이오텍 1~3차년도 추진 계획

- 1차년도 학점 교류, 2차년도 법인화, 3차년도 대학설립의 목표를 달성



### ○ 오송바이오텍 법인화 및 대학설립 추진일정

일정	주요일정	비고
'20. 12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 5월~7월	학교법인설립 신청서 준비 및 제출	
'21. 9월	법인화 완료	
'22. 1월	대학설립인가신청서	개교예정일 12개월 전
'22. 4월	참여대학 및 기업 대상 설명회	
'22. 6월	대학설립심사위원회(교육부)	
'22. 7월	대학설립인가 통지(교육부)	개교예정일 8개월 전
'22. 8~10월	전문대학-일반대학 편입학절차 수립	
'22 10월	홍보 및 학생 모집	
'23. 3월	오송바이오텍 개강	



## 8. 오송바이오텍 공유대학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

### ○ 발전 방향

첫째, 충북 플랫폼 지역혁신 사업의 15개 협력대학 컨소시엄 형태의 공유대학 구축

-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등한 교육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
- 공동교육과정 교류, 양질의 콘텐츠 및 인프라 공유 등 실현
- 학점교류, 시설 공동 사용,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활동

둘째, 공유대학 플랫폼의 공정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법인화 구축

- 법인을 통하여 참여 대학들이 합의와 집단 규범에 의한 자율 규제
- 정부의 모니터링을 통해 공유대학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
-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파트너십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공동체

셋째,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강화 생태계 구축

- 온라인 비대면 학습 시스템을 통한 혁신적인 블랜디드러닝 학습법 구현
- 교육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사이버 '배움의 장(場)' 구현
-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AI와 SNS에 친숙한 학습환경 준비

### ○ 기대효과

첫째,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및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지역균형발전

둘째, 바이오헬스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셋째, 관산·학연 밀착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참여대학, 혁신기관, 공공기관 협력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

【토론 3】

## 공유대학에 기업이 바라는 점

---

진은숙(NHN 기술전략팀 CTO)



---

# 공유대학에 기업이 바라는 점

## 공유대학과 IT기업간의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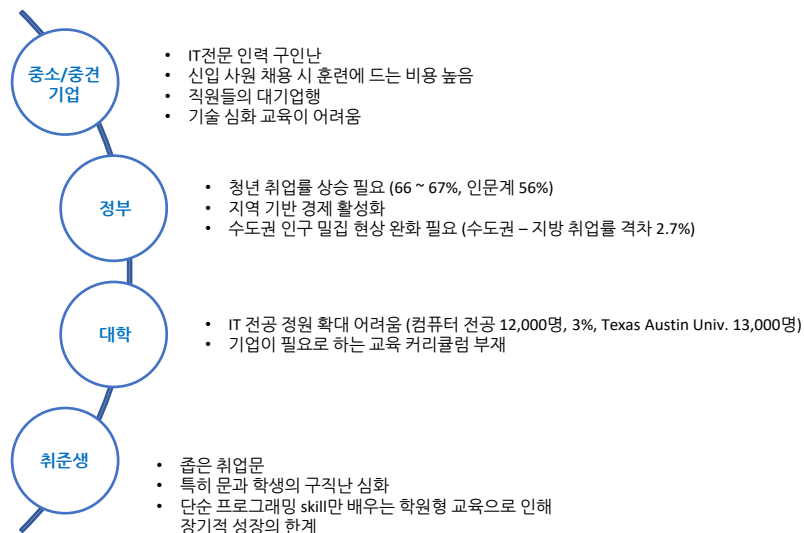
---

2021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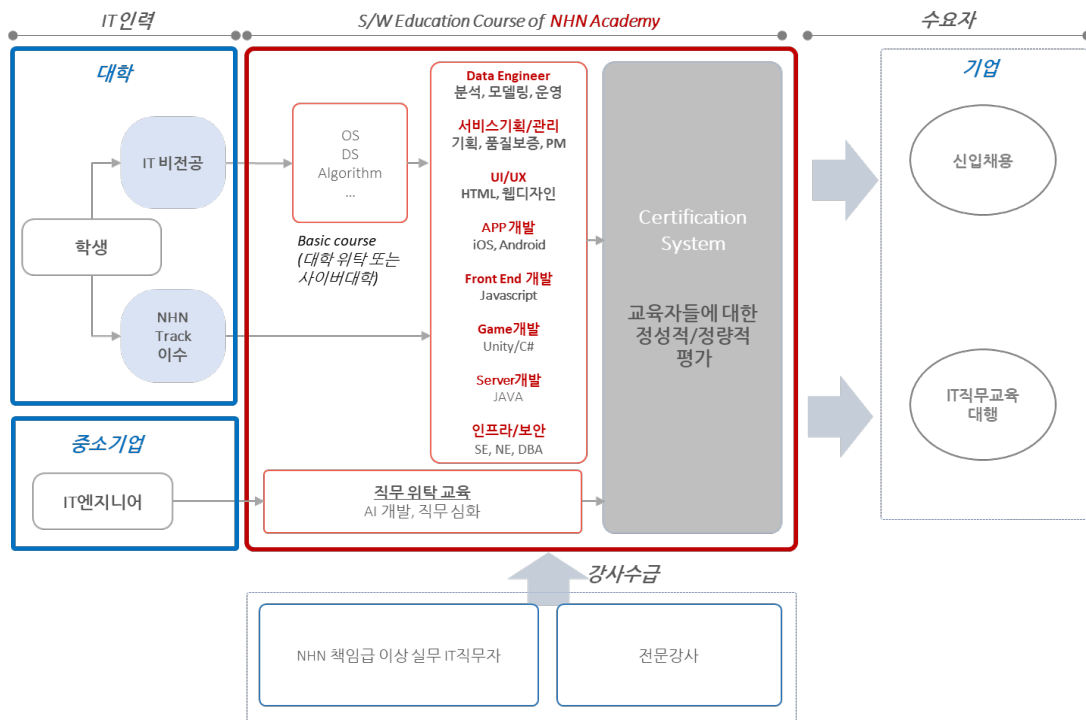


### IT 인력 관련 Pain Poi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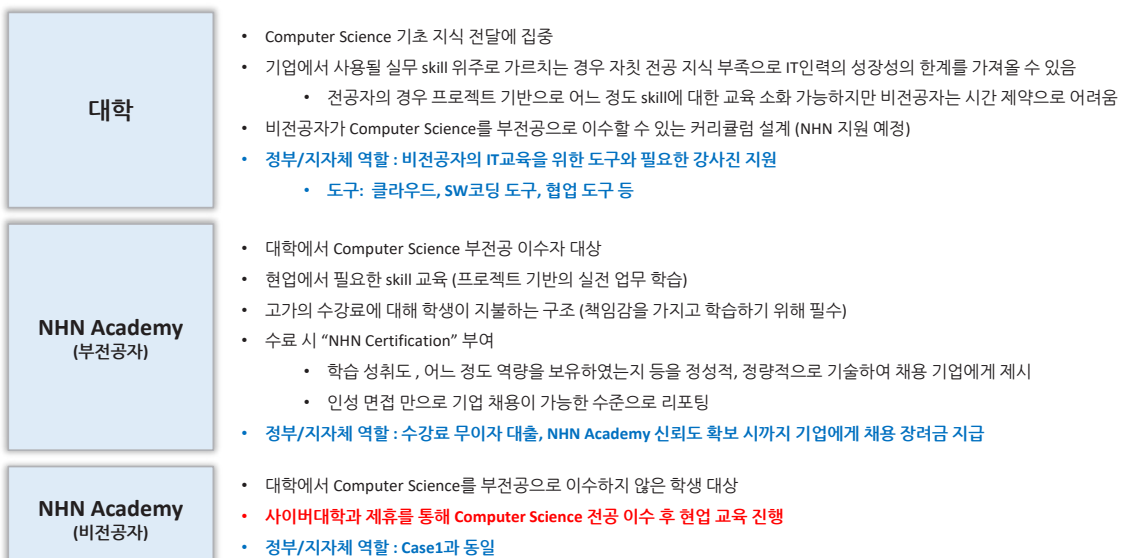


## NHN Academy 계획 : 현장에서 필요한 SW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의 IT직무 교육 대행



## 해결 방안 #1 : IT 인력 부족

- 전 산업 분야가 DT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IT 인력 수요 급증
- 그러나, 대학의 Computer Science 전공 정원은 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비전공자의 IT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 해결 방안 #2 : IT인력 수도권 집중 현상

- SW인력이 희망하는 기업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 (네이버, 카카오, NHN, 넥슨, 엔씨소프트, 라인, 삼성전자, SKT 등)
  - 개발자 중심의 업무 문화 및 환경, 특히 수평적 조직 구조
  - 학벌, 네트워크가 아닌 역량으로 성과를 인정받음
  - 이직을 통한 연봉 상승 가능성 높음
  -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무실 인테리어
- **지역 기반의 SW개발센터 설립 필요**
  - 기업 측면에서 ROI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NHN 김해 센터를 통해 성공 사례 확보 필요
  - 지역 특성에 기반한 IT사업 유치 및 육성 → 특히 지역에 있는 공공 기관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예: 대구 KERIS)
    - 예) Smart Factory, Smart Farm
-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 한 두개 기업이 지역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수천명의 IT 인력이 Job Position을 가질 수 있도록 다수의 IT기업 확보 필요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개발센터를 지역 거점에 위치시키는 기업에 대해 혜택 부여 필요
- **지역 대학 졸업생 또는 비전공자 → NHN Academy를 통해 검증된 IT인력 수급 →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 가능**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발센터는 지역으로 위치시키도록 해야 함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직접 인건비를 줄이기 보단 사무실 운영 비용 등 간접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연봉이 높은 수도권으로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



5

## 해결 방안 #3 : 직원들의 대기업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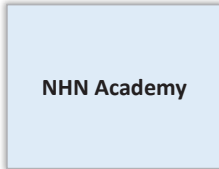
- IT의 경우 이직이 자유로움
  - 네이버, 카카오, NHN의 경우 상시 대규모 IT인력 채용 중
  - 개발자들의 특성 상 1등 기업에서 실력이 높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
  - 근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한국 엔지니어 선호도가 높아지면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
- **연봉, 복지, 근무환경 모두 우수한 기업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욕구는 막을 수가 없음**
- **대기업 수요를 충분히 채우고 남은 정도의 IT인력을 확보해야 중소기업에서 IT인력 채용이 가능함**
- 정부/지자체에서 지양해야 하는 일
  -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정부 과제를 통한 금전적 지원 → 밑빠진 독?
- 정부/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일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훌륭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간접적 혜택 필요
    - 병역특례 확대 :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똑똑한 인력을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 중소기업 재직자만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 운영
    -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만 지원하는 주택마련 고액 대출 (무이자)
    -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교육 및 교류에 대한 지원
      - IT 분야는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발전함
  - 중견 이상의 기업들의 정부 과제 유도 → 플랫폼/솔루션을 확보 → 중소기업에게 무상 또는 바우처 제공



6

## 해결 방안 #4 : 중소기업의 기술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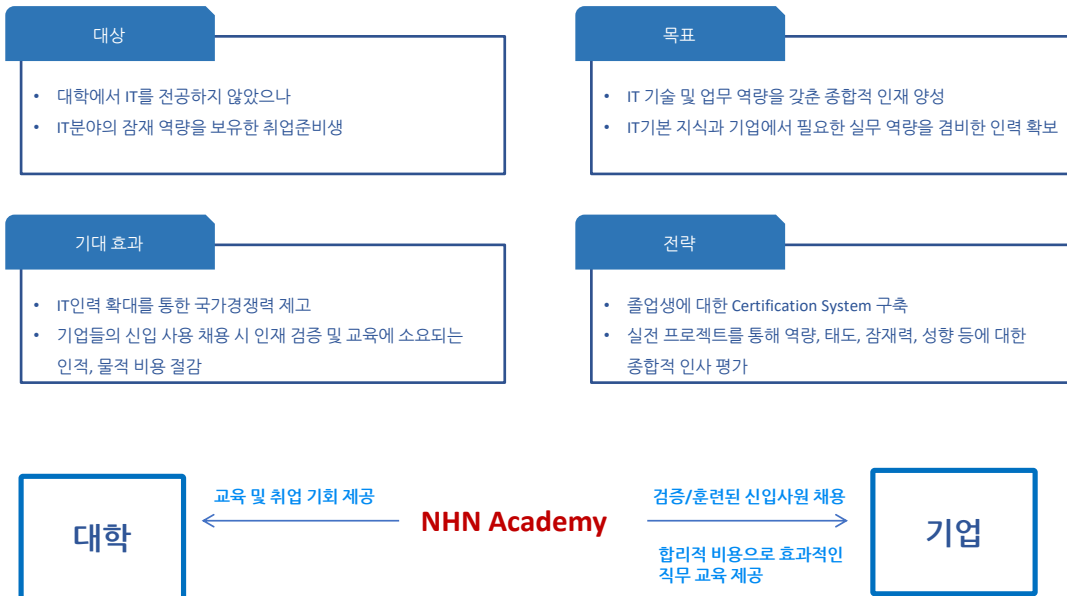
-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 신입 사원을 채용해도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음
  - 기존 기술 인력에 대해 재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예산도 없음
  - 직원들이 교육을 받거나 스터디를 하는 경우 업무 공백이 생김
- 중소기업의 기술 교육을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 각 기술 직군 별 직무 심화 교육 제공
- 온라인 강의 & 오프라인 실습 병행
- 정부/지자체 역할
  -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비 지원



## 교육 목표 및 기대 효과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 제2차 고등교육정책 포럼 지방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 방안

---

발 행 2021년 2월 24일  
발 행 인 반상진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덕산읍,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www.kedi.re.kr](http://www.kedi.re.kr)  
전화 : (043)5309-753  
팩스 : (043)5309-469  
인 쇄 처 유진문화사 (043)535-2358

---

자료집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